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권리와 의무

김진명 / 내일신문 기자

**몇**년 전 국내 유수의 학습지 회사에서 방문교사를 하던 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이가 사표를 던지고 뛰쳐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출발은 '사소한' 거였다. 신참이라는 이유로 아침마다 사무실 책상 닦기부터 싱크대에 쌓인 컵 씻기가 그의 몫이기 때문이었다. 요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을 둘러싸고 시작된 '차 심부름'에 대한 논란들을 듣다보니 몇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까지 전교조가 가르침보다는 학교와의 싸움에만 치우치더니 '드디어' 이토록 뼈아픈 부직용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실제 전교조와 교장 사이에 어떤 오고감이 있었는지, 그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다만 이 기회를 틈타 '까짓 차 심부름 좀 하면 어때' 하는 이야기가 다시 들려와 기분이 울적해진다. 전교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의 밑바닥에도 비슷한 심사가 엿보인다.

"아직까지 차 심부름을 요구하는 교장도 참 고리타분하지만 그 나이에는 바뀌기 어려운 것 아니냐" "나 이도 가장 어리고 교장의 제자인 여교사가 그 정도는 웃으며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일로 직장을 그만두니 여자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거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집안에서 남편이, 오래

비가,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내 혹은 누이에게 '커피 한잔' 하고 외쳤다면 당장에 "손이 없냐, 발이 없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하물며 가족간에도 이렇는데 일을 매개로 만난 동료들 사이에서 사적인 지시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 커피 한잔에 웃으며 응하다보면 온갖 '사소한 개인적인 부탁'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스운 건 그 누구도 남자 동료에게는 그같은 '사소한 부탁'을 하지 않고 그 정도는 웃으면서 해주어야 서로가 편하고 사회생활을 오래할 수 있다고 '충고' 해주지도 않는다.

이번 교장 사건만 해도 어떻게 보자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고용한 사람에게 교장 개인의 사사로운 심부름을 요구했으니 공적 자산을 유용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이 전해졌으니 학생들로서는 여간한 피해가 아닐 텐데 그 문제를 짚는 이는 아무도 없다.

넘지 않아야 할 선은 의외로 명확하다. 업무인가 아닌가, 혹은 같은 부탁을 상대가 내게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다행히 요즘은 오지까지 전기 혜택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 커피 자판기 하나 설치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 교사건 사무직원 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PPFK